

지역 매 아리

부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용 건설기계 운전기능사 과정 개강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와 부안 제일고등학교(교장 송용관)는 지난 24일 부안 지역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건설기계(굴삭기·지게차) 운전기능사 교육과정을 개강했다.

올해로 10기를 맞는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 사용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인의 자가 정비능력 배양과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하고 신속한 농작업을 위해 실시하며 이용률이 높은 굴삭기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한다.

교육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7월 26일 24회에 걸쳐 1일 3시간씩 부안제일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

교육은 부안군농업기술센터와 부안제일고등학교가 연계해 관·학이 함께 지역사회의 농업인을 위한 건설기계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건설기계 자격취득 교육이 농업인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하고 빠른 농작업을 통한 노동력 감소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 도모

잠복 결핵 감염자 무료 검진

정읍시보건소가 결핵 예방과 조기발견·퇴치를 위해 7월 5일까지 잠복 결핵 감염자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은 어린이집 교직원과 의료기관 종사자, 학생, 병역판정자 등 31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결핵을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하여 집단 시설 내 전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결핵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격리와 장기치료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감염병이다.

치명적인 병이지만 잠복기에 관심을 갖고 치료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

보건소는 검진 후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객담검사 등 추가 검진을 실시하며 결핵 예방 생활수칙 안내 등 결핵 예방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되므로 2주 이상의 기침과 발열, 체중감소와 같은 결핵 의심 증상이 지속 되면 결핵 검진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가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25일 정읍체육관에서 '제 69주년 6·25전쟁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가졌다.

“전쟁의 아픔, 잊지 않겠습니다”

정읍시, 6·25전쟁 69주년 행사 정읍체육관서 개최

정읍시는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25일 정읍체육관에서 제 69주년 6·25전쟁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가졌다.

행사는 전후 세대들에게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6·25전쟁의 아픔을 깨닫게 하고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국가안보의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 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유진섭 시장, 도·시의원, 군부대, 향군회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시립 국악단의 위로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대화사, 기념사, 6·25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진섭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리다"며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후손인 우리가 대한민국 호국 안보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의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고창군, 6·25 제69주년 행사

고창군에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6·25전쟁 제69주년 행사가 열렸다.

25일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행사는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보존단체,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인,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노인복지관 실버동아리 선운밴드의 위안공연을 시작으로 호국정신 함양과 보존문화 창달에 기여한 9명의 군수포상, 기념사, 고창출신 시인 강현택님의 자작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유기상 군수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될 때에 6·25전쟁이 남긴 교훈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의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고창군도 평화의 시대에 앞장서며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만세삼창으로 굳건한 안보의지 고취

6·25참전유공자회 부안군지회, 제69주년 6·25 기념행사 개최

6·25전쟁 발발 69주년 기념행사가 6·25참전유공자회부안군지회의 주관으로 7개 보존단체 회원 300여명과 유관기관·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웨딩홀에서 개최되었다.

6.25전쟁 기념행사는 6.25전쟁의 의미를 상기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군민들에게 국

의 굳건한 안보의지를 고취하고 조국의 민주자유주의 수호를 위해 먼저 간 전우들의 뜻을 기

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준석 6.25참전유공자회 부안군지회장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6.25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참석자와 군민 모두 6.25전쟁의 참혹함을 되돌아보고 안보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6.25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침체된 정읍경제 살리기 '총력'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정읍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에 나섰다. 시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8천800만 원 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이다.

시는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3%(사업체별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4억5천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내 2천3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난해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관련해 시는 현수막과 전광판 자막 표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23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약 8천부의 전단지

를 배포했으며 신태인·연지·생고을 시장, 소상공인연합회 등에도 배포할 계획

이다. 유진섭 시장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산림자원 공익기능 증진 숲가꾸기 사업 진행

부안군은 미세먼지 저감,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의 최적 발휘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550ha 규모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공익림가꾸기(큰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64ha를 추진하고 조림지의 사후관리 작업으로 조림목 생장촉진을 위한 풀베기 사업 266ha와 도로변 덩굴제거 220ha를 실시

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해는 위도 및 관내 도로변의 덩굴제거를 확대해 가로경관 및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숲가꾸기와 조림사업

을 확대 추진해 부안군 산림의 가치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의회가 25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고창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25일 의정실에서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심사위원회는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5인과 고창군의회 의원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김성규 위원(전북일보

기자)으로 선출되었다.

조규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이 군민들에게 의의성으로 비추어 지고 있다"면서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images of wine bottles,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The advertisement lists several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 such as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6세 | 500ml 1병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Contact information at the bottom includes 'TEL : 063-584-9900' and 'www.gangsanwine.com'.